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사순절 둘째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3월의기도

조성우 선교사를 위한 기도

찬 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 288)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인도

봉 헌*

내 주님 서신 발앞에(찬 214장 4절)

말씀교독

누가복음 7:11-17

특별찬양

주 달려죽은 십자가

말씀선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찬양과결단*

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찬 399)

파송의말씀

축 도*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3월의 공동기도는 “**조성우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큐티책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4. 오늘(3/13) 2부 예배 후에 **youth group 학부모회의 (PTA)**가 있습니다.
5. 다음 주일부터 “**확신의삶, 생명의삶**”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지를 보시고 다음 주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4월부터 영상으로 수요성경통독을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내일(3/14일)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미국교회, 중국교회, 브라질교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8. 오늘(3/13)부터 수요일(3/16)까지 **김원재 목사가 노회와 CCKAP**에 참석으로 뉴저지에 있습니다.
9. 3월 부터 “**목~토**”에 **현장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시간의 소중함을 빗대어 “Time is Money”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지만, 이 말은 시간과 돈을 같은 차원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은 차이가 많습니다. 돈을 아끼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돈은 부자들에게 집중되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한 시간이 주어졌고, 모두 동등한 24시간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어떤 시간들을 시간을 즐기고 선용하며 살아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른채 조바심 속에서 살아 갈까요. 같은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철든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잘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은 계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철이 든다”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는 단순히 계절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고 내다볼 줄 알고,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철이 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앙상한 가지에 푸른 잎이 나고, 또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이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철이 든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현장에서 이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를 물어보기도 하고, 직분을 물어보기도 하며, 상대방의 믿음을 파악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